2017 새 설계

김 희 철 광주지방국세청장

"공정납세·투명세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 자료 제공 확대…성실납부 유도
모바일 서비스 보강 납부비 절감
복지세정 집행…저소득층 경제 안정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세정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에 납세자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세금을 편안하게 납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3일 광주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보강해 세금 신고·납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납세자가 편하고 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에 도움되는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 임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영세납세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납세자 권익을 존중하는 세정,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회복되는데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납세자에게 가장 필요한 세정지원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와함께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 역외탈세를 최소화해 엄정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법과 규정,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김 청장은 "근로장려금 등 복지세정을 꼼꼼히 집행해 영세납세자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민들이 세정을 통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한 마음이 돼 자유롭게 소통하고 따뜻한 동료애를 느끼는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조직 전체의 창의성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청장은 "경쟁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세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하는 투명한 인사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로 돕고, 감싸주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향후 직원들과 간담회, 체육의 날 행사, 영화·축구 등 직장 동호인 모임을 통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며 함께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의 발전을 위해서 김 청장은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세정이 돼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청장은 "우리 지역은 중소납세자 비중이 높고 조선업, 해운업 등 최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업종이 많아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의 세정지원 수요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민원인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헌신적 자세로 납세자들로부터 일 잘하는 광주청, 따뜻한 광주청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 출신인 김 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대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광주세무서 총무과장, 목포세무서 직세과장, 국세청 기획계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43.97 (+17.81)
- ⬇ 금리 (국고채 3년) 1.62% (-0.02)
- ⬆ 코스닥 636.57 (+4.53)
- ⬇ 환율 (USD) 1203.50원 (-4.50)

고용창출 5년만에 절반 '뚝'

올 성장률 2.6% 전망…성장률 1%당 취업자 10만명 불과

우리 경제의 성장률 1%당 늘어나는 일자리 규모가 5년 만에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가뜩이나 2%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창출력마저 약화되면서 좀처럼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고, 일자리 증가 규모는 26만명 내외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성장률 1%당 취업자 증가 규모는 10만 명 정도로 분석됐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6%, 일자리 증가 폭이 29만 명 내외로 성장률 1%당 고용 증가 규모가 11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더 떨어지는 셈이다. 이는 불과 5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12년 우리 경제는 2.3%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일자리는 무려 43만7000개 늘어났다. 성장률 1%당 19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겼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 1%당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005년 7만7000명, 2006년 5만7000명, 2007년 5만1000명, 2008년 5만2000명 등에 불과했다. 저성장 경제 구조로 변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같은 고용창출력 둔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구조조정, 수출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 인력감축이 지속되는데다 청탁금지법 시행, 한계 자영업자 증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의 부담요인이 더해지면서 고용시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연합뉴스

중기청,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할인폭 확대

최대 한도 30만→50만원

중소기업청은 올해 설을 맞아 다음 달 28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구입 시 할인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린다고 3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때 액면가보다 5% 싸게 살 수 있는데, 그 할인 최대 한도를 5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온라인쇼핑몰(http : // onnurimarket.kr)을 통해 우수 지역특산품 품목별 실시간 가격비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쇼핑몰 이용고객 대상으로 온누리 전자상품권 증정이벤트를 실시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 카드 이용객에 상품권 설맞이 복드림 이벤트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광주은행 KJ카드 이용고객 중 개인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3일부터 '2017 설맞이 福 Dream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구정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진행하며, 전 가맹점 2~5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기본으로, 닭띠 고객 중 이벤트 등록 후 이벤트 기간 동안 50만원 이상 이용 고객에게 1만원의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10만원 이상 이용 고객 중 신용카드 고객 100명, 체크카드 고객 100명을 각각 추첨하여 온누리 상품권 3만원도 증정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수입 계란 공수…6월까지 무관세

정부가 설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치솟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산 가공 및 신선 계란의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식용으로 대량 수입된 적이 없었던 수입 신선란이 조만간 긴급 공수돼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t을 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무관세 계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 실수요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서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새얼굴

"지자체와 공조 입주기업 애로 해결"

방재성 산단공 광주전남본부장

"지역 입주기업 성장을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체계화하고 고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일자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한 방재성(55) 신임 본부장은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임·직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방 본부장은 또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돈독히해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고흥 출생인 방 본부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산단공 경기지역본부 기획총괄팀장, 본사 기획조정실 성과관리TF팀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호남본부 대불지사 창업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